LG, 협력사 생산성 제고 스마트팩토리 지원 속도

작년 300억 들여 생산라인 자동화
전년대비 생산성 최대 550% 증가

LG전자가 협력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 협력사에 3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 자동화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전년대비 자동화율이 약 10% 포인트, 생산성이 최대 550%나 증가하고 불량률도 최대 90% 감소했다.

자동화를 위해 LG전자는 글로벌생산센터와 소재/생산기술원 전문가를 협력사에 파견해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찾아냈다. 이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순위를 매겨 자동화를 추진했다. 제품 구조나 공법을 변경하거나 부품 복잡도를 낮추는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제안했다.

1차협력사 고모텍은 LG전자 지원으로 제빙도어 수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공정을 40% 규모로 축소한 후 불량률이 80%로 줄고 생산성은 220% 높아지며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냈다.

삼원동관은 새로운 용접 방식을 추천받아 불량률 90% 감소, 생산성 10% 높이는 효과를 이뤄냈다. 투자비용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지원도 받았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한 상생의 핵심"이라며 "협력사가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가 12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

LG, 하반기 전략스마트폰 티저영상 공개

듀얼스크린에 프리스탑 힌지 적용
내달 초 獨 IFA 2019서 최초 공개

LG전자가 12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약 15초 분량의 영상은 시계 화면으로 시작된다. 시계에는 기존 LG 듀얼 스크린과 스마트폰의 고정각도를 암시하는 0°, 104°, 180°가 적혀있다. LG전자가 올해 초 선보인 LG 듀얼 스크린은 0°, 104°, 180°의 각도로 고정해 사용 가능하다.

영상 내에서 시계의 분침은 0°에서 180°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침과 만난다. 하나로 합쳐진 시침과 분침은 양쪽으로 펼쳐지며 두 개의 화면으로 변신한다.

LG전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LG 듀얼 스크린에 '프리 스탑 힌지' 기술을 적용했음을 암시했다. 프리 스탑 힌지는 노트북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신제품이 화면을 덮은 상태부터 완전히 펼친 상태까지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LG전자는 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에서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스마트폰 신제품과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된 LG 듀얼 스크린을 처음 공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제주항공, 中 하늘길 6개 새로 연다

이달 중 인천-난퉁 등 노선 확대

제주항공이 8월 중 6개의 중국 노선에 새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13일 인천-난퉁 노선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운수권을 활용해 인천과 부산, 무안을 기점으로 중국 6개 도시에 취항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인천에서 취항하는 난퉁은 상하이와 가까운 도시로, 주3회(화·목·토요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이어 8월19일에는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이자 백두산 관광의 관문인 옌지로 주6회(월·수·목·금·토·일요일), 8월21일에는 하얼빈으로 주3회(수·금·일요일) 운항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의 취항도 이어진다.

8월20일에는 부산-장자제 노선에 주2회(화·토요일), 8월22일에는 무안-장자제 노선에 주2회(목·일요일) 운항을 시작한다.

이 밖에 무안-옌지 노선도 주2회(수·토요일) 일정으로 8월21일에 취항하며, 인천-베이징(다싱국제공항)과 제주-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 제주-시안 노선도 곧 운항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상반기 줄 적자 난 정유업계 '설상가상'

中 대규모 설비가동… 하반기도 우울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 전경

에쓰오일 영업익 73% 급감
현대오일·SK이노·GS 등도
영업이익 40% 이상 줄어

미중 분쟁 장기화로 회복 지연
설비투자로 수익성 확대 모색

국내 정유업계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정제마진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 역시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정제마진은 1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7월 셋째주보다는 소폭(0.7달러) 하락했지만 올해 초 1달러 수준의 정제마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제마진은 1~4달러에서 움직였다. 정제마진이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일제히 감소했다.

에쓰오일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11조4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799억원으로 72.6%나 감소했다. 2분기에는 영업손실 905억원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현대오일뱅크 상반기 매출은 10조4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52억원으로 57.2%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은 상반기 매출 25조9522억원, 영업이익82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7%나 줄었다.

GS는 상반기 매출액 8조9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1조5억원을 기록하며 9.6% 감소했다. GS칼텍스의 상반기 매출액은 15조6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4629억원으로 47% 감소했다.

정유회사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생산해 수익을 낸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정유회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정제마진이 1배럴당 4~5달러를 넘겨야 정유사는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앉아서 손해만 봐야 하는 구조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은 웃돌고 있지만, 하반기 중국 등 석유업체들의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중국 헝리석유화학이 최근 일평균 40만배럴의 설비를 가동한 데 이어 5월부터 저장석유화학도 일평균 40만 배럴의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6월 말에서 7월 초 브루나이 홍이도 일평균 17만 배럴의 설비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도 일평균 22만배럴의 정유설비 시험가동에 나섰다. 이들 설비는 9월에서 10월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 경제 회복에 암운이 드리웠을 뿐 아니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정유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금물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는 호재로 꼽힌다. 이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글로벌 선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유황유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황 함유량이 0.1%인 저유황유는 고유황유보다 40~50% 비싸다. 규제가 시행되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정유사의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유4사는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 ▲솔벤트 디 아스팔팅(SDA) ▲잔사유 고도화 설비(RUC) ▲올레핀 다운스트림 컴플렉스(ODC) 등 설비 구축을 통한 수익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의 등락 여부는 현재로서는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비투자에 주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T 매장에 어르신 스마트폰 강사 떴다

알기쉬운 스마트폰교실 우수 수강자
교육 거쳐 시니어 보조 강사로 활동

강사로 나선 안정필 할머니(81세,빨간색 상의)가 서울 대림동 소재 SK텔레콤 T월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사용법을 강의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대상 '알기 쉬운 스마트폰 교실'에서 우수 수강자를 선발, 교육을 거쳐 스마트폰 강사(보조강사)로 활동하는 '다시, 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알기 쉬운 스마트폰 교실은 어르신 등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 매장의 T매니저들이 무료로 스마트폰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사회적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다. 수강생은 1만명을 돌파했다.

이번에 선발된 '시니어 강사' 7명의 평균 나이는 69.7세다. 시니어 강사 중 최연소자는 61세, 최고령자는 82세다. 이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부산 양산시·대구 북구·광주 북구·천안시·전주시 등에 있는 총 6개다.

어르신 수강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진 시니어 강사를 통해 교육 효과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시니어 강사들은 소정의 강사 활동비를 지급받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알기 쉬운 스마트폰 교실' 수강생은 60대 이상 어르신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금융·생활편의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강생도 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나 벨소리 설정, 사진찍기 등 기초 기능부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나 유튜브 활용법 등을 강의한다.

또 어르신들이 매번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 잔액 확인·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과 보이스피싱 예방법, 고속버스·기차예매와 같은 교통편의 앱 활용법 등도 알려드린다.

SK텔레콤은 또 스마트폰 교실을 수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인지강화훈련을 쉽고 편하게 도와드리는 챗봇 '뇌건강 지킴이 새미'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